위기의 전남대

하 해법은 없나

직선제 등 현안 다룰 '비상 협의체' 시급

집행부·총동창회 참여 '총장 공백사태' 혼란 최소화

내달 구조개혁 대상 선정 등 평가 대비 신속 대처해야

전남대는 19대 총장 선거와 관련 개교 후 최초로 검찰 수사를 받는 수모를 당했다. 또한 1순위 당선자가 사퇴해 리더십이 공백인 상황에서 정부의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더욱이 구조개혁(부실대학) 대상 선정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평가 등의 사업은 '직선제폐지' 수용이 중요 평가 지표여서, 탈락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전남대는 무엇보다 새로운 총장 선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총장 공백(직무대행 체제)으로 인한 혼란을 차단하고, 오는 8~9월 실시될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현 상황에서는 학칙 개정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총장 선출이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히 재선거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도 선거 수사를 최대한 빨리 마쳐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총장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총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총동창회, 대학평의원회(교수·교직원) 등 학내외 모든 구성원들의 대표가 참여하는 '비상 협의체' 결성이 시급하다.

이와함께 임기와 상관없이 김윤수 총장의 지도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재선거는 물론 직선제 폐지에 대한 입장 정리가 시급한 탓이다.

총장 직선제는 전남대의 역사성, 한국사회 민주화에 대한 노력과 열망을 고려하면 이론의 여지없이 유지해야 하는 절대 가치다. 수차례 직선제를 치르면서 대학의 발전을 이뤄왔으며 상당한 성과도 거뒀다.

하지만 직선제를 시행해 온 지난 20여년 동안 국가적 사회적 환경이 변화한데다 다양한 폐해들이 부각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학 자치를 위해 시작된 직선제가 해를 거듭하면서 정치화된 데 따른 것이다. 능력과 비전을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고교출신 또는 유권자 수가 많은 특정 단과대 소속 교수가 아니면 총장 후보에도 들지 못한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파벌이 심화돼 학교 발전과 화합을 해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심지어 이번 전남대 사태와 같이 동료 교수의 진정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등 반목·갈등이 커지고, 구성원들 사이에는 상실감과 자괴감이 깊어지고 있다.

이같이 직선제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잘못된 운영의 결정적 폐해가 드러나면서 총동창회 등 대학 내부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먼저 직선제 폐지나 간선제 또는 공모제 도입 등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총장직선제의 가치는 전남대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지역민을 위해 희생한 대가로 얻은 권리다. 어둠의 시대에 대학은 지역민의 희망이고, 의지의 대상이었다.

지역 사회가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데에는 그 바탕에 대학에 대한 불신이 있다. 잊을 만 하면 들려오는 연구비 횡령비 등 교수 사회의 비리도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다. 전남대가 이미 지성과 리더 집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지역 발전과 이익보다는 오직 대학과 교수들만의 이익에 집착하려 한다는 지역민들의 충고를 새겨야 할 때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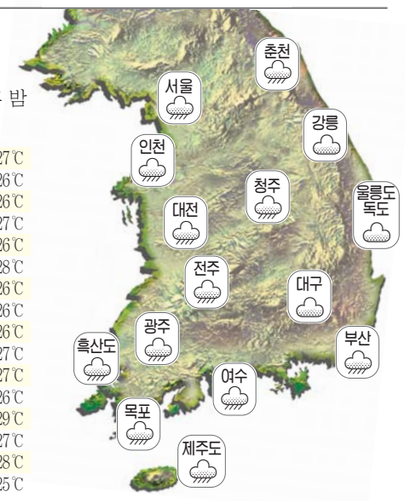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31분 해짐 19시 46분 달뜸 03시 36분 달짐 18시 10분

또 장맛비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온 후 밤부터 그치겠다.

광 주	흐리고비	22/27℃
목 포	흐리고비	23/26℃
여 수	흐리고비	22/26℃
나 주	흐리고비	22/27℃
완 도	흐리고비	23/26℃
구 례	흐리고비	23/28℃
강 진	흐리고비	23/26℃
해 남	흐리고비	23/26℃
장 흥	흐리고비	23/26℃
순 천	흐리고비	22/27℃
영 광	흐리고비	23/27℃
진 도	흐리고비	23/26℃
전 주	흐리고비	23/29℃
군 산	흐리고비	22/27℃
남 원	흐리고비	22/28℃
흑산도	흐리고비	23/25℃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먼바다	북동~동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5m
먼바다	동~남동	1.0~2.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먼바다	북동~동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2.0m
먼바다	북동~동	1.5~2.5m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피부질환지수

경고 보통 높음

	밀물	썰물
목포	01:06 12:48	06:38 18:21
여수	07:48 20:25	02:00 13:5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8(수)	19(목)	20(금)	21(토)	22(일)	23(월)
날 씨						
최저/최고	23/27	23/28	23/28	23/28	23/30	23/31

檢, 2순위 후보 이병택 교수 수사

전남대 '총장선거' 의혹

전남대 총장선거 부정의혹 수사를 벌이고 있는 광주지검이 2순위 후보자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추천된 이병택(55·공대) 교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이 교수 지지 교수들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이들 교수의 이메일을 복원하기 위해 전남대 정보전산원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이 교수와 측근 교수 2명 등 교수 3명의 연구실과 광주지역 식당 1곳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사실상 검찰 수사는 지난 13일 사퇴한 1순위 후보 박창수(59·의대) 교수와 이 교수로 그 대상을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교수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한 뒤 박 교수와 함께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교수가 혐의를 인정하고 후보자를 사퇴한 만큼 양형기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태권도 수련 외국인들 '2012 조선대 국제 태권도 아카데미' 가 16일 대학 해오름관 대강당에서 개막했다.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태권도 아카데미는 세계 12개국 태권도 수련생 및 지도자들이 모여 기량을 쌓고 화합을 다지는 국제 문화교류 행사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태풍 북상…최고 200㎜ 비

내일부터 남해안·지리산 인근 영향권

광주·전남 오늘 20~60mm

18~19일 제7호 태풍 '카눈'(KHANUN, 중심기압 1002hPa·최대풍속 16m/s)의 영향으로 남해안과 지리산 인근에 최고 200㎜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7일 광주·전남지역은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20~60mm의 비가 내린 뒤 늦은 밤부터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16일 오후 3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87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50㎞의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는 카눈의 영향으로 18일 남해안과 지리산 인근을 중심으로 최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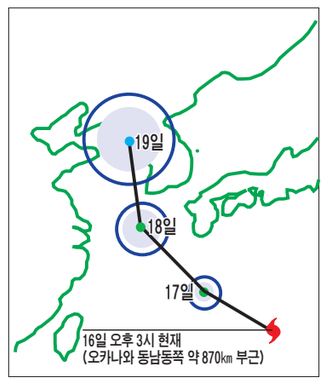
특히 해안지방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 21~22일에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대기 하층으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대가 형성돼, 남부지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제7호 태풍 카눈의 이름은 태국에서 지었으며, 열대 과일의 하나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태풍 카눈 예상 진로도



'주민치안 체감 안전'

전남경찰 전국 1위

전남지방경찰청이 주민 치안 체감안전도에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1위를 차지했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이 일반 국민 747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범죄안전도와 교통사고 안전도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남은 종합 67.7점을 받아 전체 평균보다 5.7점보다 높았다.

또 전남경찰청은 2012년 상반기 치안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80.4점으로 16개 지방청 중 3위를 기록했고, 112신고 처리분야에서도 81.8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2012년 상반기 5대 범죄 검거율 분석결과에서도 전남경찰은 73.7%를 기록해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뒀다.

/윤현석기자 chadol@

옆사람 이어폰 짜증 막게

스마트폰 최대 음량 축소

내년부터는 지하철 옆자리 승객의 이어폰에서 새어나오는 음악소리로 인한 불편이 조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스마트폰 · MP3플레이어 · PMP(휴대용 동영상 플레이어) · 태블릿기기 등 휴대용 음향기기 제조업체와 함께 최대음량 권고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권고기준은 100dB(A)(A-가중 데시벨, 주파수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해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유럽은 2002년부터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음량을 100dB(A)로 제한했다.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도 100dB(A)의 소리에 2시간 이상 노출되면 청력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02)2276-05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앞):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화 옆):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02)419-338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앞):032)517-5110 수원점(남문 옆):031)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터리 흥국생명 앞):031)821-6655 안양점(벽산쇼핑2001 아울렛 앞):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앞):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031)378-4183 부천점(롯데백화점 옆):032)329-4400 남양주점(평내호평역 앞):070)8829-9903 부산 서면B점(서면로터리):051)818-8800 서면A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앞):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터리):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앞):055)297-6060 진주점(중앙로터리 옆):055)745-9870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053)426-1511 남일동점(아카데미극장 옆):053)425-7575 경북 포항점(육거리):054)244-5110 안동점(구.안동농고네거리):054)859-2248 광주 광주점(구.도청 옆):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사거리 지하상가입구):061)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터리):063)252-5728 군산점(구.시청정문 옆):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063)838-5600 남원점(시장네거리):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 앞):042)254-5110 대전점(중촌로터리):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앞):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041)553-2888 공주점(공주큰사거리):041)852-5110 충북 청주점(현.까르프 구.속리산고속 맞은편):043)222-1177~8 충주점(삼원로터리):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033)647-0588 춘천점(팔호광장 앞):033)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터리):064)75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 국제품질 ISO 9001인증 /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광주 구)도청옆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광주 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